

가라타니 고진 딛고 서기

[2021 공동체은행 빈고 대안금융 공부모임 두번째 순서]

[참고글] 가라타니 고진, 〈NAM에 대하여〉

http://greenreview.co.kr/greenreview_article/1883/

[일시] 2021 3월 26일(금) 저녁 8시

[장소] 온라인 ZOOM

[제목] 가라타니 고진의 제안과 빈고의 실천적 변형

- 노동운동, 소비운동, 그리고 금융운동
- 교환양식론의 변형, 기탁과 사양
- 전략으로서의 코뮌뱅크 : 화폐에서 자본으로
- 세계공화국과 코뮌/커먼즈

공동체은행 빈고

1. <u>노동운동, 소비운동, 그리고 금융운동</u>	2
2. <u>교환양식론의 변형, 기탁과 사양</u>	8
3. <u>대항화폐에서 대항은행으로</u>	15
4. <u>세계공화국과 코뮌/커먼즈</u>	18
5. <u>참고 1 : 가라타니 고진 도표 변화</u>	20
6. <u>참고 2 : 빈고 도표 변화</u>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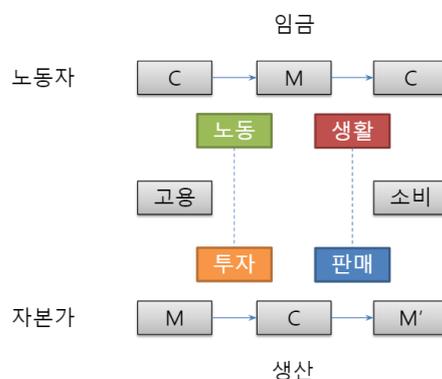
1 노동운동, 소비운동, 그리고 금융운동

1.1 반자본운동의 두 계기로서 노동운동과 소비운동

가라타니 고진은 자본의 순환에서 위기의 두가지 계기를 언급하며 노동자와 소비자의 반자본운동에 대해 논한다. 그리고 노동자=소비자의 동일성을 강조하고 노동자로서의 소비자운동을 제안한다. 네그리가 말하는 노동하지 말라. 간디가 말하는 소비하지 말라.

자본의 운동 M-C-M'(화폐-상품-화폐)에서 자본이 만나는 두 개의 위기적 계기가 있다. 그것은 노동력 상품을 사는 것과 노동자에게 생산물을 파는 것이다. 만약 이 가운데 어떤 것이든 실패하면 자본은 잉여가치를 획득할 수 없다. 바꿔 말하면 자본일 수 없는 것이다. 노동자는 여기서 자본에 대항할 수 있다. 하나는 네그리가 말한 것처럼, "일하지 말라"는 것이다. 물론 그것은 "노동력을 팔지 말라"(자본제 아래서 임노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면 의미를 이루지 못한다. 또 하나는 "자본제 생산물을 사지 말라"는 것이다. 그것들은 노동자가 '주체'가 될 수 있는 장에서 행해진다. 그렇더라도 노동자(소비자)에게 '일하지 않는 것'과 '사지 않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하며 살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것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생산-소비 협동조합이나 LETS 등의 어소시에이션밖에 없다. 이리하여 비자본제적 생산-소비 협동조합이나 지역통화의 존재는 자본제 경제 안쪽에서 일어나는 투쟁을 지지한다. 그와 동시에 후자의 불매(不賣)-불매(不買) 운동은 자본제 기업을 생산 협동조합으로 재편성해가는 것을 재촉할 것이다. (<<트랜스크리티크>>, 498p)

여기서 가라타니 주장의 특별한 점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 기존 노동자운동이 임금노동 관계 안에서의 투쟁에 주력했다면, 그보다 임금노동을 거부하는 투쟁이 본질적임을 강조한 부분. 이것은 라파르그의 '계을 수 있는 권리'나 고르의 '노동시간단축' 그리고 네그리의 '노동거부'에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두번째, 기존 소비자운동을 반자본운동의 한 계기로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그럴 때에만 의미가 있음을 강조한 부분. 이것은 간디로 대표되는 불매운동, 오웬 등으로 대표되는 협동조합운동에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세번째는 두가지 계기를 모두 강조하면서도 사실상 소비자(물론 노동자로서의 소비자)로서의 계기에 더 방점을 찍은 것이다. 그 이유는 노동자가 종속적인데 비해서 소비자는 주도권을 가지고 개개인이 주체가 되어 초국가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때문이다.



가라타니의 위 주장에 대해 모두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남은 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자로서의 소비자라는 규정의 애매함이다. 가라타니도 얘기한 바와 같이 화폐를 가진 '사는 입장'은 노동자와 비노동자가 구별되지 않고 시민으로 등장하는 지점이다. 시민으로서의 소비자의 선택과 노동자로서의 소비자의 선택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소비의 현장에서 노동자로서의 주체성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실천적인 해답이 없다면, '노동자로서의 소비자'는 그저 표현에 그칠 뿐이다. 따라서 가라타니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소비자협동조합과 소비자운동에서 상대적으로 더 수용된 측면이 있지만, 소비자가 동시에 노동자라는 인식이 현실에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구현될 수 있을지는 드러난 바가 없고, 반자본운동의 계기를 발견하기는 어려워지는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닐까?

두번째는 소비자로서의 계기만으로 충분히 주체적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물론 가라타니의 말대로 불매운동은 노동자가 '사는 입장'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지점이고, 자본이나 국가가 어찌해볼 도리가 없다는 점은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자가 노동력을 팔지 않고는 살 수 없듯이, 소비자도 소비하지 않고 살 수 없다. 일부 상품에 대한 불매는 가능해도 자본제 상품 전반에 대한 불매는 가능하지 않다. 생산협동조합이 충분히 소비에 필요한 상당 부분을 제공할 만큼 성장하지 않는다면 소비자로서 충분히 주체적이기는 어렵다. 또한 소비자의 정체성은 무한히 다양하기 때문에 특정 이슈에 대해서 특정 소비자들이 단결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실질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킬 정도까지 확장성을 가질 수 있기는 쉽지 않은 것이 아닐까?

1.2 노동과 소비가 종합되는 계기로서의 금융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보고자 하는 것은 수입과 지출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금융이라는 계기이다. 금융은 수입과 지출의 불일치에서 비롯된 단순한 잉여/손실에 불과한 계기다. 일차적인 노동자=소비자의 관심은 잔액이 0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잉여가 다소 남으면 다음 달로 넘겨서 그 다음 달에 더 많은 소비를 할 수 있다. 당장 꼭 필요한 소비에 필요한 잉여가 있기만 하다면, 잉여의 크거나 용처는 크게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향후에 필요한 소비를 위해서 잉여를 모아둘 필요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언젠가는 모두 소비하기 위한 목적이려면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

노동자=소비자의 C-M-C (상품-화폐-상품) 순환에서 노동력 상품의 가치는 단순히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데 필요한 가치로 가정된다. 그래서 노동으로 얻은 임금을 그것을 재생산하는 생활에 모두 써버리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 도표는 노동자와 자본가의 관계를 단순화해서 설명하는 기본 모델일 뿐, 현대의 노동자가 실제로 화폐와 마주하는 현실은 좀 더 복잡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력 상품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다. 노동력 상품은 가족으로부터의 선물(양육과 재생산)과 국가의 복지(교육과 지원), 자본의 대출상품(학자금대출)으로 만들어진다. 사회생활의 시작부터 각종 부채로 구성된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노동력 상품은 자본에 판매됨으로써 임금 수입을 발생시킨다. 임금 수입은 물론 소비를 통해 지출되지만, 동시에 그동안 누적된 부채를 탕감해야 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저축하고 자산을 확보하는데 쓰인다. 노동자=소비자의 화폐 순환 C-M-C의 좌우에 부채와 자산이라는 M의 계기를 추가하면, 노동자=소비자 역시도 M-C-M이라는 자본의 화폐순환과 유사한 순환이 발생한다. 그리고 자본의 화폐순환과 마찬가지로 화폐에서 시작해서 더 많은 화폐를 추구하는 주체라는 착각에 빠져든다. 자본가와 동일시하고 실제로 동일한 행동을 한다. 어쩌면 극소수는 자본가가 되는데 성공할 지도 모른다.

한편 수입과 지출의 차이는 사회적 관계를 발생시킨다. 수입과 지출의 차이가 +인 사람 A와 -인 사람 B가 있다. -인 사람의 생존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간에 화폐가 이동해야 한다. A가 B에게 선물. A를 수탈해서 B에게 분배. A가 B에게 대출. 그래서 적절히 각자의 잉여와 손실이 상쇄된다면 수입과 지출의 불일치의 문제는 사라진다. 대신 이동의 결과로 생긴 A와 B의 관계가 남는다. 그리고 이 관계의 성격은 다음 번의 교환과 그 이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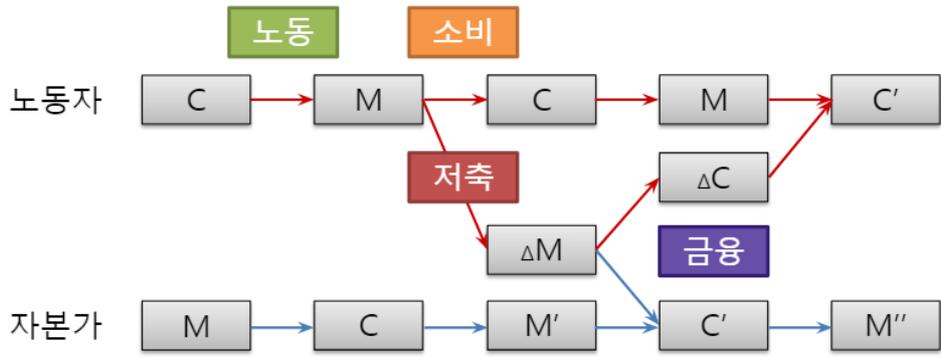
결국의 잉여/손실의 결과로 발생한 금융의 문제는 직접적으로 사회적 관계의 문제가 된다. 금융의 문제는 어떤 개인 혹은 집단이 특정기간에 흑자인가 또는 적자인가 하는 경제적 상태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가? 어떤 사회 속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문제다.

따라서 여기에는 어떤 전도가 발생한다. 잉여는 단순히 우연적인 차액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목적으로 전환될 수 있다. 잉여가 목적이기 오히려 수입과 지출은 그 목적에 종속되는 계기가 된다. 지출이 목적이 아니라 잉여를 목적으로 한 수입은 한계가 없다. 수입의 결과로 지출하거나, 필요에 따라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잉여를 목적으로 필요를 억제하고, 지출을 줄인다. 잉여를 목적으로 노동을 계획하고, 소비를 통제한다. 자본주의에서 잉여는 더 많은 잉여를 낳기 때문에 그 자체가 목적이 된다.

수입과 지출의 단순한 차이 잉여에서 시작한 금융은 이제 결코 단순하거나 종속적인 계기로 간주할 수 없다. 오히려 노동자와 소비자를 연결하고 종합적인 전략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금융은 핵심적인 위치를 갖는다. 노동자의 주체성과 소비자의 주체성은 각각 노동현장과 소비현장으로 공간적 시간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관념적으로 동일시 되는 것과는 다르게 실제로는 결합되기 쉽지 않다. 이것이 연결되는 장소는 오히려 홀로 조용히 가계부를 작성하고 재정계획을 작성하는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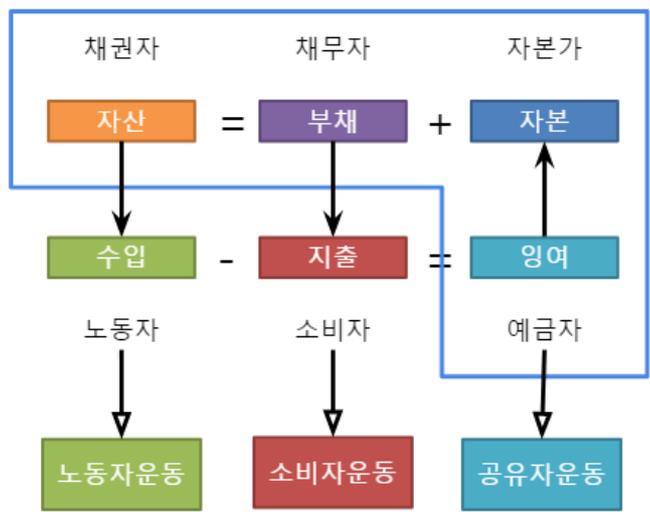
노동자의 화폐순환을 조금 확장해 보자. 노동자가 임금을 모두 소비한다면, 노동력의 가치와 노동자의 삶은 단순 반복에 불과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계기로 노동자가 저축을 할 수 있게 된다면 노동력의 단순재생산이 아닌 다른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라면 노동자의 저축은 자본의 흐름에 휩쓸리게 된다. (파란색 경로) 이러한 흐름은 노동자 개개인의 화폐라면 큰 의미가 없겠지만, 노동자 전체의 저축 또는 연기금이라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의 힘이 견제받지 않는 것은 노동자의 화폐가 이미 자본이 되어서 노동자의 흔적은 찾을 수도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만약 자본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는 금융이 있고 이를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떨까? (빨간색 경로) 이러한 금융은 생산자협동조합이나 노동자가 소유한 기업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고 자본과는 다른 생산물을 만들어 내고 다른 노동자=소비자의 삶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서 또 하나의 주체성을 발견하게 된다. 저축하고, 투자하고, 대출받고, 조직하는 주체. 자신의 화폐를 타인과 주고받고 움직이며 공유하는 이 주체를 공유자(금융자?), 이런 공유자의 조직된 활동을 공유자운동이라고 하자. 가라타니의 등식을 확장하자면 노동자=소비자=공유자

결국 노동자=소비자는 단순히 노동한 것을 소비하는 주체가 아니라, 저축을 하고 부채와 자산을 갖는 금융의 측면에서 능동적 주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금융자본이 발전할수록 이러한 경향은 더욱 커진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복식부기 회계의 기본등식을 이용해서 각각의 계기와 대응되는 주체성을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다.



문제는 금융이라는 계기에서 노동자=소비자가 갖는 화폐가 자본으로 전화되는 것과 동시에 이들은 자본의 담지자라는 자본가의 입장에 서게 된다는 점이다. 자산=부채+자본. 자본가의 관심은 자신이 보유한 자산으로 더 많은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자본가는 자기자본에

타인자본(부채)를 더해 전체 자산을 구성한다. 자본가는 복합적인 캐릭터다. 그는 자기자본을 가졌지만, 타인자본(부채)도 함께 가진 채무자인 동시에 이 둘을 합친 전체 자산을 운용해서 타인으로부터 수익을 추출하는 채권자다.

자산은 수입의 원인이고, 부채는 지출의 원인이며, 자본은 잉여의 누적합계로 구성된다. 자본가에게 수입-지출=잉여의 등식은 이제 더 이상 노동하고 생활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수입은 이제 곧 자산수익이고, 자산을 얼마나 전략적으로 구성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성과를 냈는가의 지표다. 지출은 부채를 활용한 데 따르는 비용으로서 누구에게서 어떤 성격의 자금을 동원하고 반환할 것인가를 계산해서 레버리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지표다. 그리고 그 차액으로서의 잉여는 곧 자본수익, 이윤으로서 이것이 자본가의 최종 성적표가 되고 만약 성공적이었다면 자본은 확대재생산된다.

직접적으로 잉여금을 종자돈으로 땅을 사고, 기계를 사고, 노동자를 고용해서 사업을 시작한다면 고전적인 자본가의 이미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사업가를 자본가라고 한다면 자본가는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종자돈이 있더라도 그것으로 사업을 일으키고 또 성공해서 자본가가 되기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그런 자본가에게 자신의 잉여금을 투자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현대적인 금융자본주의는 누구라도 자본가로 만들어 줄 수 있다. 적극적으로는 회사의 주식을 매입한다거나, 펀드를 가입하는 방법도 있고, 소극적으로 은행에 예적금을 하거나 단지 그냥 입금된 월급을 남겨두는 것만으로도 금융자본주의에 기여하고 또 성과를 분배받을 수 있다. 돈을 장롱에 넣어두는 사람은 바보다. 잉여금은 당연히 은행에, 가능하다면 더 많은 이자를 주는 은행에 넣어두어야 한다. 은행 이자율이 물가상승률을 넘지 못한다면 그냥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사람은 바보다. 좀 더 수익률이 높은 펀드나 채권에 가입해야 한다. 그리고 좀 더 똑똑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해야 한다.

자신의 돈을 금융자본에 투자하고 수익을 얻는다는 점에서 돈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질적인 차별성은 사라진다. 자본가와 비자본가의 차이는 단지 자본과 자산의 규모의 차이, 수익률의 차이, 적극성 정도의 차이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렸다. 자본가와 노동자/소비자의 대결구도는 성공한 자본가와 실패한 자본가의 차이가 되었다. 모든 사람과 모든 돈이 재테크에 몰려들고 그렇지 않으면 뒤떨어지게 되는 현실이다. 이런 현실에서 화폐는 더 이상 단순한 교환이나 저축의 수단에 그칠 수 없다. 모든 화폐는 은행에 넣어두는 것만으로도 자본으로 전환된다. 자본이 아닌 화폐는 바보의 화폐일 뿐이다. 자본이 아닌 화폐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는 비효율적인 자본일 뿐이다. 노동은 자본금을 만들기 위한 수단이 된다. 절약은 자본금의 손실을 줄이는 수단이 된다. 노동자가 잉여금을 어떤 자산에 투자해야 할지 고민하게 될 때, 노동자의 잉여금은 자본금이 된다. 그리고 자본가는 더 높은 레버리지수익을 노리기 위해서 부채를 기꺼이 떠안고 채무자가 된다.

1.3 금융에서의 반자본운동 : 공유자운동

모든 화폐가 금융자본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반자본운동은 난처한 상황에 빠져든다. 앞서 노동자는 노동을 판매하지 않거나, 혹은 판매하지 않을 수 없다면 노동을 하고 자본과 대결해서 더 많은

화폐를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소비자는 소비를 거부하거나, 소비하지 않을 수 없다면 자본과 대결해서 더 나은 소비를 할 것을 목표로 한다. 노동운동의 결과로 수입이 늘어나고, 소비운동의 결과로 지출이 줄어든다고 생각해보자. 여기까지는 반자본운동의 성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잉여는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 잉여는 어떻게 되는가? 저축을 한다. 그런데 어디에 어떻게? 은행, 펀드, 보험, 부동산? 되도록 안정적이고 되도록 높은 수익을 주는 곳으로? 여기서부터는 현명한 자본가의 선택이다. 대안이 없다면, 이렇게 우리의 돈은 곧 금융자본이 된다. 이 자본은 어디로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우리는 여기서 기로에 선다. 이 기로에서 현명한 자본가와 반자본주의자의 차이는 무엇일까?

우리가 최대한의 소득을 얻고, 최소한의 소비를 할수록 우리의 화폐는 우리를 거쳐 금융자본이 된다. 그리고 우리는 금융자본의 일부분으로서 기능하게 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자본에 대항하는 실천이 가능할까? 그렇다면 우리가 단결해서 금융운동이라는 반자본실천을 할 수 있을까? 금융이라는 계기에서 반자본적 주체가 되고, 반자본주의 금융운동을 실행할 수 있을까? 반자본주의자의 자본을 거꾸로 작동시켜서 자본에 대항하는 자본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2 교환양식론의 변형, 기탁과 사양

가라타니 고진의 교환양식론은 자본, 국가, 네이션을 각각의 고유한 교환양식으로 설명한다. 표현은 조금씩 바뀌지만 네이션은 선물과 답례의 호수적인 관계, 국가는 수탈과 재분배의 관계, 자본은 상품과 화폐의 교환 관계 위에 자리를 잡고 있다. 여기서 가라타니의 교환양식론의 이론적 타당성에 대해 논할 수는 없다. 다만 마르크스의 생산양식론에 준하는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첫번째, 자본=국가=네이션으로 극복할 대상의 실체를 규정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자본과 국가의 사이에서 절적인 위치를 고민하거나, 자본과 국가를 넘어서는 것으로 생각된 사회 또는 공동체는 항상 모호하고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가 하는 고민을 해소해준다.

두번째, 자본, 국가, 네이션 각 영역의 기반을 각각의 교환양식으로 대응시켜서 설명함으로써, 각 양식의 고유한 특징과 물질적 기반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세 영역은 소멸되거나 통합되지도 않은 채 서로 의지하면서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 것인지를 설명한다.

세번째, 단순한 교환관계에서부터 세계질서까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연속적인 설명의 틀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마르크스의 생산양식론이 단순한 생산현장에서부터 세계혁명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통합적인 이론으로서 힘을 가졌던 것과 유사하다.

그런데 단순한 궁금증은 이런 것이다. 왜 하필 교환양식은 세가지로 구성되며 네번째 교환양식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가라타니의 논의에서 네번째 교환양식이 어떤 것인가는 논리적으로는 물론 실천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여기에 대한 가라타니의 언급은 여기저기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교환양식 A를 부정하면서 고차원적으로 회복된 것', "어소시에이션의 어소시에이션", "X", "보편종교의 창시기에 존재한 공산주의적 집단", '노동자운동으로서의 소비자운동', '생산자-소비자협동조합', '지역화폐시스템 LETS', '세계공화국' 등.

교환양식 A, B, C가 분명한 교환관계에 기반하고 있는데 반해 교환양식 D의 교환관계는 불분명하다. 가라타니는 <<트랜스크리틱>>에서는 지역화폐시스템 LETS를 강력하게 지지한다. 그런데 가라타니를 중심으로한 NAM 운동도 LETS를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한국에서도 다양한 LETS 실험이 진행되기도 했으나 가라타니가 주목한 정도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LETS 외에 생산자-소비자협동조합이나, 노동자운동으로서의 소비자운동 등도 이론적인 설득력에 비해 구체성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이후 가라타니의 관심은 세계공화국으로 넘어갔다. 역시 흥미로운 생각이지만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대안을 실현하는 교환양식 D의 구체성은 포기되었고, 실제로 현실에서 가라타니 이론의 영향력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교환양식론의 장점을 폐기하지 않으려면 LETS나 생산자-소비자협동조합의 한계를 넘어서 교환양식 D의 구체성을 다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교환양식 A, B, C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근대문학의 종언>>에 포함된 <와야 할 어소시에이션이즘>이라는 좌담회에서 동료 학자인 아사다 아키라와 오사와 마사치도 비슷한 질문을 가라타니 고진에게 던진다.

오사와 : 최초의 세 가지(상품교환, 수탈/재분배, 호수제)는 교과서적으로 말하면 칼 폴라니가 말하는 세 가지 재물의 흐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 이 세가지는 역사적으로 이미 있었던 형태입니다. 그에 대해 이론적으로는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은 '교환'의 형태가 어소시에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이 무엇인지 지금으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 가라타니 씨의 논의에 제 의견을 부가하면 가라타니 씨는 세 가지로 나누었지만, 저는 '교환'이라는 것은 결국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수제로 귀결되는 증여와 보통의 시장교환입니다. 재분배라는 것은 증여와 반대증여가 중심이 된 형태여서, 요소적 커뮤니케이션의 형식으로서 증여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역사적으로 인류가 실현한 교환형태는 지금으로서는 증여, 그렇지 않으면 시장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 같은 상품교환, 요약하자면 이 두 종류가 아닐까요?

가라타니 : 나는 그 생각에 찬성할 수 없습니다. 나는 교환의 제 형태를 현재로부터 계보학적으로 소행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 폴라니는 재분배라고 말하지만, 그 근본은 수탈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수탈하기 위해서 상대를 보호하고 재분배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넓은 의미에서 교환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것을 교환이 아니라고 한다면, 오사와 씨가 말하는 것처럼 교환은 두가지밖에 없는 것이 되겠지요. 다만 전자본주의적인 지배/착취의 관계를 교환으로 간주함으로써, 그것을 정치(상부구조)가 아니라 광의의 경제(교환)의 일환으로서 보는 것이 나의 모티브입니다. 거기서 제4극인 X가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까지 자본주의(경제), 국가(정치), 농업공동체, 어소시에이션 등 제각기 취급되거나 하부구조와 상부구조라는 식으로 보였던 것들이 교환의 형태로 구조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나는 <<트랜스크리틱에>>에서는 X를 어소시에이션이라고 썼지만, <<네이션과 미학>>에서는 단지 X라고 썼습니다. X는 유토피아입니다. 즉 현실에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이 X가 어소시에이션으로서 제일 처음 나타난 것은 보편종교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부정하고, 또 시장사회를 부정하는 것에서 나왔습니다. 부처도 예수도 공자조차도 그 점에서는 같습니다.

아사다 : 자본주의=국민=국가가 보로메오의 고리처럼 삼위일체를 이루고 있다는 분석은 사실 선명하다고 생각하지만,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실현되지 않는 X를 상상하기 힘들게 되지요. ... 그러나 포지티브하게 X라는 것을 구성하지 않으면 안되며, 그것은 분명 가능하다는 것이 <<트랜스크리틱>>이래 중요한 주장이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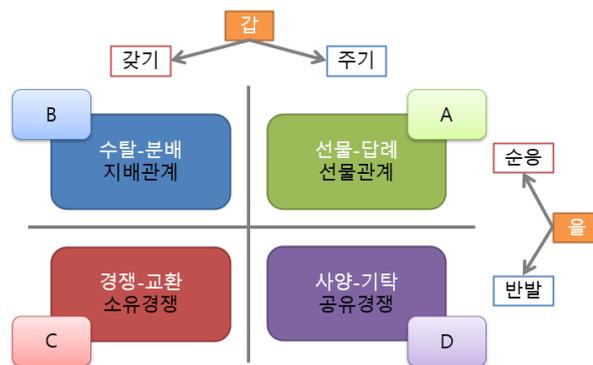
가라타니 : 다만 그것을 그저 포지티브하게 지향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NAM에서도 지역통화를 운영하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지역통화만을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생협이나 실천적인 대항운동이 있는 후에야 비로소 성립가능하고 기능하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 지역통화가 정착될 리 없습니다. 요컨대 자본제=네이션=스테이트에 대한 대항운동 속에서 X로의 계기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X를 적극적으로 구한다면, 히피의 코뮌이나 야마기시카이(山岸會)같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나는 자본제 바깥에서 X를 만들 것이 아니라, 자본제 안에서 그것을 만들 계기를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소비자로서의 노동자' 투쟁이지요.

가라타니는 설득력있는 답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두 사람의 의문이 해소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가라타니의 대답은 보편종교 또는 X라는 형태로 구체성을 피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포지티브하게 지향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답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부분은 실천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는데, NAM이 실패했기 때문에 비어 있는 것이 아닐까? 지역통화만을 운영하려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가라타니 본인이 지역통화를 제안할 때는 지역통화가 없이는 어소시에이션이든 대항운동이든 어렵다고 했는데, 이제와서 반대로 대항운동이 없이 지역통화가 성립하기 어렵다해서는 곤란하지 않은가? 그리고 현실에는 무수한 대항운동과 협동조합이 이미 존재하고 있지 않은가? 실패는 NAM과 지역통화의 실패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자본제 안에서 X의 계기를 찾아내는 것은 좋고, '소비자로서의 노동자'투쟁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서 그게 어떤 것인가에 대한 대답은 없다. 이론적으로는 용인될 수 있지만, 실천적으로는 아무말도 하지 않은, 말그대로 X를 얘기한 것에 지나지 않은 결론이 아닐까?

2.1 교환의 분해 : 제안과 응답

교환 양식의 종류를 구체화하기 위해 모델을 도입해보자. 교환은 교환을 제안하는 사람과 그 제안에 응답하는 사람의 선택에 따라서 양식이 달라진다. 교환을 제안하는 사람 갑은 주기 또는 갖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제안하고, 응답하는 사람 을은 순응 또는 반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대응한다고 하자. 그러면 아래와 같은 도표를 얻을 수 있다.



A : 갑이 주기를 제안했을 때 을이 순응한다면, 선물이 실행되고 답례의 의무가 발생한다.

B : 갑이 갖기를 제안했을 때 을이 순응한다면, 수탈이 실행되고 재분배의 필요성이 발생한다.

C : 갑이 갖기를 제안했을 때 을이 반발한다면, 서로 갖기를 위한 경쟁, 투쟁이 실행되고, 그 결과로 거래가 성립된다.

D : 갑이 주기를 제안했을 때 을이 반발한다면, 서로 주기를 위한 경쟁, 사양이 실행되고, 그 결과로 공동기탁이 성립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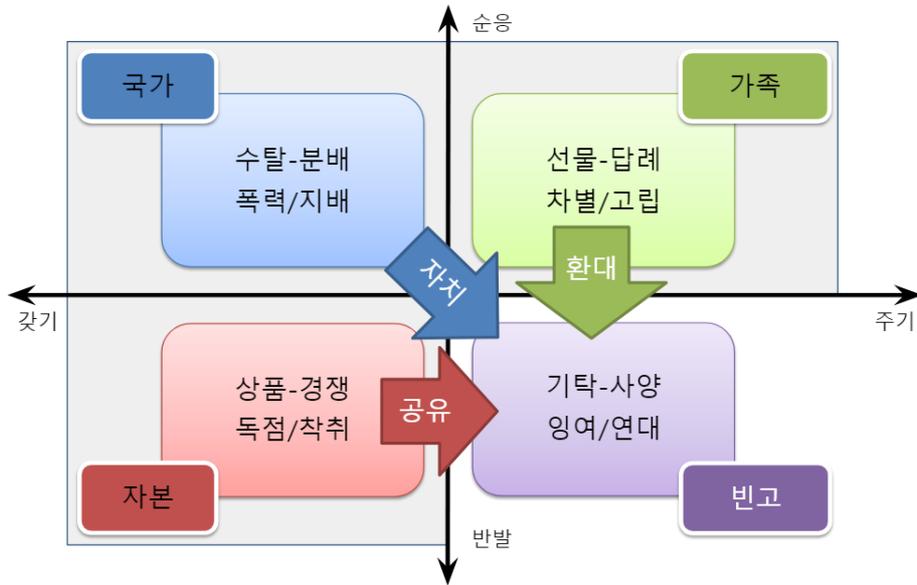
이 도표를 가라타니의 교환양식론과 대응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도표의 A, B, C, D의 경우의 수는 각각 교환양식 A, B, C, D에 대응한다. 교환양식론을 이와 같은 형태로 다시 썼을 때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 교환관계의 원리와 차이를 분명하게 비교해볼 수 있다. 두번째, 왜 교환관계가 정확히 네가지로 구분되고 다른 경우의 수는 의미가 없는지를 원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세번째 각 교환관계가 상호간에 어떻게 전환되고 상보적일 수 있는지를 역동적으로 분석해볼 수 있다. 세번째는 교환양식D의 실제적 원리를 발견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시스템을 고안해볼 수 있다.

2.2 사양과 기탁이 만드는 공유지

우리는 여기서 D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A, B, C의 구조 속에서 D는 분명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갑이 주기를 제안할 때 을이 반발하는 경우, A, B, C에 익숙한 상황에서 D는 대단히 비현실적이고 갑에게도 을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 이상한 경우일 것이다. 갑은 주기를 하려고 하지만 을의 반발로 실패한다. 갑이 주기의 입장을 고수한다면 을 역시 지속적으로 반발하고 서로 주기를 위한 경쟁이 발생한다. 서로 갖지 않겠다는 사양의 경쟁이다. 갖기를 선택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A, B, C에서는 없었던 잉여가 발생한다. 갑과 을이 공동으로 사양하고 기탁해서 공유물이 발생한 것이다. 공유물은 갑과 을 어느쪽으로도 가지 않지만, 그렇다고 손실되는 것도 아닌채 갑과 을 공동의 영역에 머무른다. 만약 어느 한쪽이 힘이 약해서 사양하기 어렵다면 공유물은 약한 쪽으로 가게 된다. 강한 쪽이 갖게 되는 C와의 차이점이다. 또한 공유물의 발생으로 인해서 D는 병이라는 제 3자가 들어왔을 때에도 이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A, B, C와는 전혀 다른 특징을 갖는다.

D의 특징을 비교를 통해서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A와 동일한 선물의 동기와 우애를 계승하지만, 이를 단지 받아들여서 선물과 답례의 관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선물로 전환한다. C와 유사한 경쟁의 관계로서 힘의 대결이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균형을 이루지만, 힘이 센 쪽이 아닌 약한 쪽이 갖게 된다는 점에서 반대다. B처럼 모든 사람이 기여하고, 이를 재분배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그것이 폭력이 아닌 자치와 자발성에 기초했다는 점에서 반대다.

D는 A, B, C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참조점이 된다. C는 자유의 원리에 기반해 있지만, 독점과 착취의 위험성을 갖고 있다. 이것은 공유의 실천을 통해 D로 전환될 수 있다. B는 평등의 원리에 기반해 있지만, 폭력과 지배의 위험성을 갖고 있다. 이는 자치의 실천을 통해 D로 전환될 수 있다. A는 우애의 원리에 기반해 있지만, 차별과 고립의 위험성을 갖고 있다. 이것은 환대의 실천을 통해 D로 전환될 수 있다. 자유, 평등, 박애가 온전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라도 공유, 자치, 환대의 실천이 필요하다.



그런데 과연 D는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 너무 이상적인 것이 아닌가? 그것이 하나의 안정적인 교환양식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까? 그것은 자본=국가=네이션의 공격에도 대항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강력한가? 교환양식 D의 단서가 되는 것이 가라타니 본인의 분석에서 몇 번 등장한다.

<<세계사의 구조>> 72p

씨족사회 이전에 존재했던 유동적 밴드사회는 일부 복혼을 포함한 단혼적 가족 몇 개가 모여서 만들어졌다. 밴드의 응집성은 공동기탁이나 공식(共食, 함께 먹기)의례에 의해 확보된다. 하지만 밴드의 결합은 고정적이지 않으며 언제든지 나가는 것이 가능하다. 그것은 대개 25~50명 정도의 소집단이다. 그 수는 음식의 공동기탁이 가능한 정도 이상으로 증대되지 않으며, 또 공동의 수렵이 가능한 정도 이하로 감소하지도 않는다. 또 밴드가 고정적이지 않을뿐만 아니라, 가족의 결합도 고정적이지 않다. ... 밴드사회와 씨족사회의 차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그것은 공동기탁과 호수의 차이라고 해도 좋다.

"루이스 헨리 모건은 가족제 경제의 계획을 '살아 있는 코뮌리즘'이라고 부른다. 딱 맞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도 세대의 알맞은 나눔은 경제적인 사교성의 최고형태이기 때문이다. 즉 '각각이 그 능력에 따라, 각각이 그 필요에 따라'이기에... 어떤 공헌을 했는지와는 무관하게 필요한 것이 제공된다. - 마셜 살린스에서 재인용"

모건이 발견한 '살아있는 코뮌리즘', 또는 마르크스가 '원시적 코뮌리즘'이라고 부른 것은 수 세대로 이루어진 밴드사회에만 존재한다. 씨족 사회에 존재하는 공동기탁은 이미 호수적 원리 하에 있다. 그러므로 살린스도 호수원리가 세대에도 관철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공동기탁과 호수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84p

밴드사회는 공동기탁, 즉 재분배에 의한 평등을 원리로 삼는다. 이것은 수렵채집의 유동성과 분리할 수 없다. 그들은 끝없이 이동하기 때문에 수렵물을 비축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것을 사유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전원이 균등하게 분배해버린다. 혹은 손님에게도 대접한다. 이것은 순수증여여서 호수적이지 않다. 수확물을 비축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일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어제 일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동적 밴드사회에서는 유동성(자유)이야말로 평등을 가져오는 것이다.

공동기탁으로서의 D는 A와는 분명히 구별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모건이 발견하고 마르크스가 원시적 코뮌리즘으로 부른 것은 밴드사회의 교환원리 즉 공동기탁이다. 공동기탁은 선물과 달리 대상을 특정하지 않는다. 그것이 밴드 안에 특정 관계인일 필요도 없고, 밴드 밖의 손님이어도 상관이 없다. 오히려 공동기탁은 답례를 기대하는 선물이라기보다는 순수한 증여이다. 그러나 순수한 증여가 신이나 사육이 없는 수렵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오히려 내일 떠나기 위한 유동성(자유)를 위해서 내가 소유하지 않는 것이다. 누구에게 줄 것인가, 답례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질문은 차후의 문제이다. 그러한 행동으로서 더 큰 사회의 일원임을 증명하는 것이 더 현명한 판단일 수 있다. 유동적이고 불특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선물은 사회 전체에 대한 순수한 증여, 즉 공동기탁이 된다. 소유를 사양해야 하는 어떤 필요 또는 윤리가 자리잡고 있다면 공동기탁은 일어날 수 있다.

가라타니는 A와 구분되는 교환원리로서의 공동기탁을 발견했음에도 이것이 소규모 밴드에서만 가능한 것으로서 어떠한 양식과 체계도 만들지 못한 A보다도 원시적인 교환원리로서 간주하고 여기에 대해 더 깊게 나아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인지, 교환양식 D를 설명할 때는 A의 고차원적 회복으로, 세계공화국을 설명할 때는 군사적 주권의 증여를 말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A나 증여와는 분명하게 구분되는 교환원리로서 사양과 공동기탁이 자리잡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D는 A에서 선물의 동기만을 취할 뿐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 또한 세계공화국 역시 군사적 주권을 타국에 증여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군사적 주권을 방기, 사양함으로써 전체 인류에게 공동기탁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더 명확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공동기탁을 교환양식으로서 구축하기 위한 탐구를 더 진행해보도록 하자.

2.3 협력의 진화 - 틱포텟 전략

교환관계를 제안과 응답으로 분해했을 때 여기에는 게임이론의 죄수의 딜레마나 최후통첩 게임과 유사한 분석을 시도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참고하고 싶은 것이 <협력의 진화>에서 액셀로드가 제안한 틱포텟 전략이다. 이는 반복 실행되는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 가장 성공적인 전략으로서 검증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협력의 진화>> 43p

컴퓨터 죄수의 딜레마 대회 데이터 분석결과 결정규칙을 성공으로 이끄는 특성은 네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1. 첫째 상대가 협력하는 한 거기에 맞춰 협력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지 말 것.
2. 둘째, 상대의 예상치 않은 배반에 응징할 수 있을 것.
3. 셋째, 상대의 도발을 응징한 후에는 용서할 것.
4. 넷째, 상대가 나의 행동 패턴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행동을 명확히 할 것.

적당한 조건에서는 중앙 권위체 없이도 이기주의자들의 세상에서 협력이 정말 창발됨이 증명되었다.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다. 협력이 진화하려면 개인들이 다시 만날 확률이 충분히 커서 미래에 서로 이해관계로 얽힐 것이라고 믿어야 한다. 그렇기만 하면 협력은 세 단계에 걸쳐 진화한다.

1. 무조건적으로 배신만 하는 세계에서도 협력은 싹틀 수 있다는 데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사실상 서로 상호작용할 기회가 없는 개인들이 산발적으로 협력을 시도한다면 협력은 일어날 수 없다. 그러나 아주 작게나마 대가성 협력을 바탕으로 서로 상호작용하는 무리가 있다면 이들로부터 협력이 진화할 수 있다.
2. 이야기의 중반은, 호혜주의를 기초로 한 전략이 수많은 전략들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이다.
3. 이야기의 결말은, 협력이 일단 호혜주의를 원칙으로 안착되면 덜 협력적인 전략들에 맞서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 진화의 톱니바퀴는 역회전을 방지하고 앞으로만 돌아가게 하는 미늘(ratchet) 이 있다.

154p

상호협력을 어떻게 증진할지에 대한 조언

1. 현재에 드리우는 미래의 그림자를 확대하라. : 상호작용의 지속, 횟수, 제한, 집중, 조직
2. 보수 자체를 바꾸어라. : 보수 및 할인계수의 조정
3. 서로에 대한 배려를 가르쳐라. : 타인의 복지에 의해 나의 복지가 좋아지는 현상
4. 호혜주의를 가르쳐라. : 무조건적 협력은 상대방을 망치는 경향이 있다.
5. 인식능력을 높여라. : 과거에 상호작용했던 상대를 알아보고, 관련된 특성을 기억하는 능력.

여기서 교환양식론과 게임이론을 결합하는 시도에 대해 적실성과 유용성을 따지는 것은 훨씬 복잡한 문제가 될 것이다. 다만 여기서는 각자의 이타적인 선택과 그것으로 만들어지는 관계가 특별히 예외적이거나 이상적이거나 불안정한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여러 커먼즈들의 사례들은 특정한 환경에서 이러한 교환양식이 발생하고 또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커먼즈는 단지 소규모의 작은 집단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큰 규모에서도 그 형태의 차이는 있더라도 발견되고 있다.

빈고는 금융의 영역에서 이러한 교환양식에 기반한 커먼즈뱅크가 적어도 소규모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일정정도의 안정성과 확장성을 갖게 된다면, 작지만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변화들을 쌓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3 대항화폐에서 대항은행으로

3.1 대항화폐에 걸었던 기대

지역통화 LETS는 가라타니의 실천적 제안의 핵심에 있는 것이다. LETS는 화폐가 없어서는 안되지만 있어도 안되는 딜레마, 시장이 없으면 안되지만 시장이 있어도 안되는 딜레마를 해결해줄 열쇠로서 제안되었다. LETS는 교환양식 D를 구현할 수단으로서 자본으로 전화하지 않는 화폐로 여겨졌다. 이를 통해서 생산-소비 조합을 지원하고, 노동하지 않고 소비하지 않고도 삶을 지탱할 기반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리고 일상의 작은 실천들로 자본주의 전체를 변화시킬 희망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기대를 받았다. 실제로 현실에서 진행된 NAM의 핵심 전략도 지역통화를 빼놓고는 말할 수 없다. 국내에서도 녹색평론을 통해서 각종 대안화폐, LETS, 지역화폐 등의 시도가 이어졌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LETS에 대해서는 현실에서 기대했던 성과를 낳지 못했고, 가라타니 자신이 이미 실패 판정을 내렸다.

<<NAM에 대하여>>

우리들이 지향하는 것은 LETS를 자본제=네이션=스테이트에 대항하는 운동의 핵으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LETS를 단순한 지역통화가 아닌 어떤 것으로 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생각한 것은 인터넷을 사용하여 그것을 글로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니시베 마코토(西部忠)에 의해 추진되었으며 Q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일년이 지나고 보니, 그것은 완전히 실패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유통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유통되지 않은 것은 Q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거의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Q를 벌어들일 수 있는 방법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Q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살 수 있는 것도 많아지고, Q를 벌어들이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것이 잘못이었습니다.

LETS의 원리는 본래 양자간의 호혜제를 다각적 결제에 의해서 시장화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은 호혜제이며, 노동가치와 같은 것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작은 공동체가 아니라 큰 규모로 넓히면, 호혜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게 됩니다. 암묵적으로 고전경제학의 노동가치설을 취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것은 NAM 내 노동의 대가를 계산할 때에 드러납니다.) 결국 Q는 오웬이나 프루동이 구상한 노동화폐 등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맑스가 비판한 것처럼, 암묵적으로 화폐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규제된 가치를 표시할 뿐이며, 그것 자체가 통화로서 유통될 힘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LETS는 교환양식 A에 더 가깝다는 판정이다. 하지만 LETS는 실패했더라도 LETS의 자리에 뭔가 있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민통화 L이라는 안을 구상한다.

<<NAM에 대하여>>

시민통화 L은 중소상점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하여, 대자본의 독점에 대항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욱이, 시민통화 L이 포인트카드 따위와 다른 것은, 각 기업이 L을 다른 기업과의 거래에서도

발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L은 신용통화인 것입니다. 시민통화는 포인트카드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과는 완전히 반대의 사고방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상 포인트카드는 가격할인과 똑같은 것으로 간주되지만, L의 관점에서 보면 포인트카드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는 것은, 실은 손님이 가게에 포인트분만큼의 엔(돈)을 맡기고 포인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포인트란 가게가 발행하는 은행권이라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시민통화는 그러한 신용화폐입니다. 시민통화 L은 LETS와 마찬가지로 무이자입니다. 엔 대신에 L로 지불하는 것은 무이자로 엔을 빌리는 것과 동일한 것이 됩니다. 이렇게 하여 L은 소비의 장으로부터 산업적 연관 속으로 깊이 침투하게 됩니다.

시민통화 L은 LETS와 마찬가지로, 중앙은행과 같은 것을 가지지 않습니다. LETS와 다른 것은, 여기서는 법인이 이 통화 L을 발행하는 권리(주권)를 갖는 것에 대하여, 개인(소비자)은 갖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L에 참가하는 것은 포인트카드에 등록하는 것과 똑같이 용이합니다. 한편, 개인도 통화발행권을 가질 수 있는데, 그 경우 법인과 똑같이 취급됩니다.

L이 구매력을 가지는 것은, 그것이 엔에 의해 지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엔이 구매력을 가지는 것은 달러에, 그리고 소급하면 금에 의해 지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L은 신용통화로서 처음부터 당연히 유통되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우리들은 물론 시민통화 L이 구매력을 가지는 것, 통화라는 것, 그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됩니다. 그렇다면 L은 포인트카드와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적 경제의 일환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그것을 화폐-자본을 양기하는 방향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L의 구체적인 내용은 그러한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인데, 유감스럽게도 그 상세한 사항을 여기서 말씀드릴 여유는 없습니다.

시민통화 L은 엔으로부터 떨어져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본제 경제가 산출한 시스템을 역이용하는 것이며, 이른바 엔에 달라붙은 암(癩)과 같은 것입니다. 시민통화 L에 근거한 경제권을 증식시키는 일은, 그 자체가 암인 자본제 경제에 대한 '대항암 운동'입니다. 엔이 유통되는 한 L은 유통됩니다. 무리하게 L을 제거하면 엔 시장경제도 죽어버립니다. 대항암이라는 비유는, L에는 적용이 되지만 Q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는 단순한 장난감과 같은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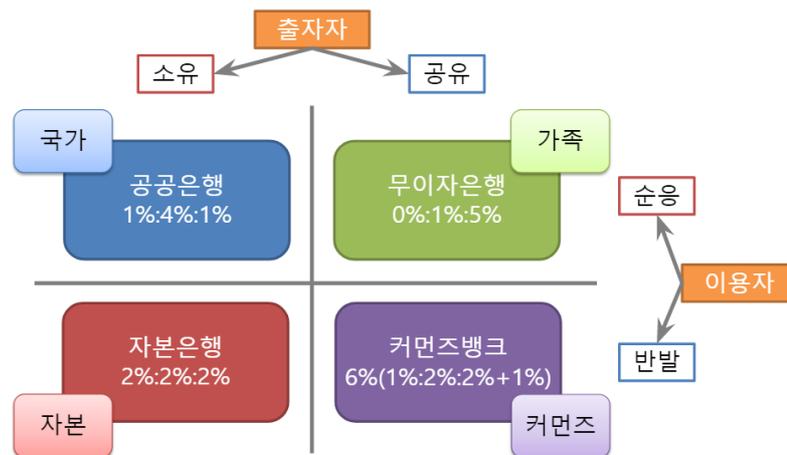
가라타니가 상세한 사항을 얘기하지도 않았지만, LETS의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은 더이상 대항화폐에 큰 기대를 걸지 않았다. 실제로 한국에서 지역화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앞다투어 시행중이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외의 의미는 없다. 시민통화 L은 LETS의 한계를 넘기 위해 유통을 강조하고 있는데, LETS가 교환양식 A에 가깝다면, 시민통화 L은 교환양식 C에 가까운 것으로, 자본주의 경제의 일환에 그칠 가능성이 많다. 결국 교환양식 D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수단으로서의 대항화폐는 아직 시도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가능할까? 방향을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닐까?

3.2 화폐의 문제인가?

- 3.2.1 지역통화? 대안화폐? LETS? 시민통화Q?
- 3.2.2 수지상쇄원리? 실물화폐의 부재? 화폐발행권?
- 3.2.3 유통되면 대안적이지 않고, 대안적이면 유통되지 않는다.
- 3.2.4 우리 삶의 몇 %를 대안화폐로 채울 수 있는가?
- 3.2.5 화폐를 바꾸면 자본으로 전환이 막아지는가?
- 3.2.6 대안화폐를 화폐 대신 사용할 수 있다면, 남은 화폐는 은행으로?
- 3.2.7 자본제 기업에게 임금을 지역통화로 받기? 상품을 지역통화로 사기?
- 3.2.8 이자를 없앨 수 있는가?
- 3.2.9 은행이 없는 화폐가 가능한가?
- 3.2.10 최종적으로는 화폐에 기반하지 않을 수 없는 대안화폐.
- 3.2.11 국가와 은행이 없는 화폐 비트코인?

3.3 문제는 자본, 그리고 이를 통제할 조직으로서의 반자본은행

- 3.3.1 화폐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기계로서의 은행
- 3.3.2 화폐를 공유지로 전환하는 기계로서의 코문/커먼즈뱅크
- 3.3.3 코문/커먼즈뱅크의 주권화폐
- 3.3.4 자본주의가 끝나지 않는 한 자본수익/이자는 없어지지 않는다.
- 3.3.5 공동체 내부에서는 없어져도 외부에서는 여전히 존재한다.
- 3.3.6 자본주의에서 분리된 지역통화의 독립적인 시스템은 불가능하다.
- 3.3.7 자본주의와 대결하며, 자본수익을 전환하는 시스템의 필요성.
- 3.3.8 자본에 포섭되어 있지만 벗어나려고 하는 복합적인 주체의 생성과 네트워크
- 3.3.9 시스템의 외부를 적극적으로 함께하기 위한 시스템, 윤리의 필요성
- 3.3.10 상품 교환을 넘어서 기존의 채권-채무 자본관계를 변형하기



4 세계공화국과 코뮌/커먼즈

4.1 세계공화국

- 4.1.1 가라타니 고진 후기로 갈수록 세계공화국의 문제로 초점 이동
- 4.1.2 국가 간의 문제. 국가 외부의 문제의 중요성
- 4.1.3 무력의 방기, UN 시스템 등
- 4.1.4 제비뽑기
- 4.1.5 트랜스크리틱에서의 국가론
- 4.1.6 세계공화국 재검토
- 4.1.7

4.2 실천적 난점

- 4.2.1 어떻게 만드는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
- 4.2.2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 4.2.3 공동체들의 공동체로서의 코뮌
- 4.2.4 공동체가 관리하고 외부와 공유하는 커먼즈
- 4.2.5 자본=네이션=스테이트를 잠식하기
- 4.2.6 NAM의 조직원칙 재고. NAM은 무엇이었나? 협동조합? 협동조합복합체? 정당? 코뮌?
 - 4.2.6.1 타조직과의 관계
 - 4.2.6.2 연대활동의 원칙
 - 4.2.6.3 관심계/지역계/계층계 동시소속 각 단위에서 선발된 대표가 평의회 구성
 - 4.2.6.4 삼권분립
: 의사결정기구(센터평의회), 집행기관(사무국, 위원회), 감사기관(감사위원회)
 - 4.2.6.5 노동은 자발적이지만, 시민통화에 의해서 지불된다.

4.3 커먼즈운동

- 4.3.1 자본수익을 사양하고 공동으로 기탁하고 외부와 공유하는 커먼즈의 생성
- 4.3.2 모두의 것과 우리의 것의 대립?
- 4.3.3 공공커먼즈, 자본커먼즈? 공동체커먼즈?
- 4.3.4 국가/자본/공동체를 구분되고 그것을 넘어서는 커먼즈가 아니라면 무슨 의미인가?
- 4.3.5 X에 해당하는 것으로서의 커먼즈
- 4.3.6 잉여가 발생할 수 있는 것, 외부로 열릴 수 있는 것은 원리적으로 기탁-사양의 교환원리에서만 발생

4.4 빈고의 문제

- 4.4.1 공동체들의 공동체, 금융적 연결만으로는 부족하지 않은가?
- 4.4.2 공동체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는가?
- 4.4.3 빈고 3대 가치를 실천으로서의 구체화하기

4.4.4 빈고 확장/확산하기, 외부와 만나기

4.4.5 코문의 중앙은행의 역할을 빈고가 한다면, 입법, 사법, 행정의 역할은 어떻게?

4.4.5.1 행정 : 상임회의

4.4.5.2 입법 : 공동체활동가회의

4.4.5.3 사법 : 갈등전환위원회

4.4.5.4 감사 :

참고 1 : 가라타니 고진 도표 변화

1 트랜스크리틱 2002

1	증여의 호혜제	농업 공동체의 내부	네이션	우애
2	수탈과 재분배	봉건 국가	국가	평등
3	화폐에 의한 교환	도시	자본(시장경제)	자유
4	어소시에이션	어소시에이션	어소시에이션	어소시에이션

2 세계공화국으로 2006



<국가의 네 가지 형태 (츨스키, 1968)>



<19세기의 구도 (1848)>

B 재분배 (약탈과 재분배)	A 호수 (증여와 답례)
C 상품교환 (화폐와 상품)	D X

<네 가지 교환>

B 국가	A 네이션
C 자본	D X

<자본제사회구성체의 구도>

3 세계사의 구조 2010

B 약탈과 재분배 (지배와 보호)	A 호수 (증여와 답례)
C 상품교환 (화폐와 상품)	D X

<교환양식>

B 국가	A 네이션
C 자본	D X

<근대의 사회구성체>

세계=제국	미니세계시스템
세계=경제 (근대세계시스템)	세계공화국

<세계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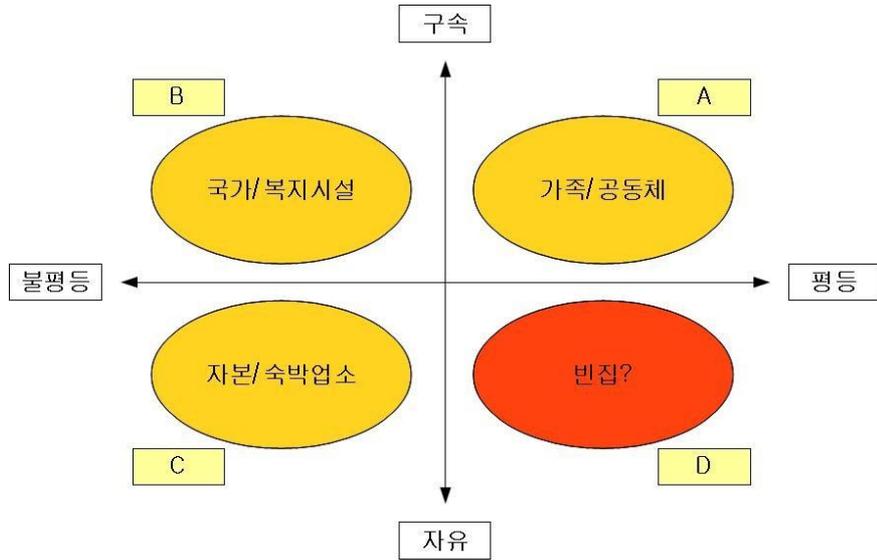
4 철학의 기원 2012

참주정	철인왕
데모크라시	이소노미아

<그리스 정치체>

참고 2 : 빈고 도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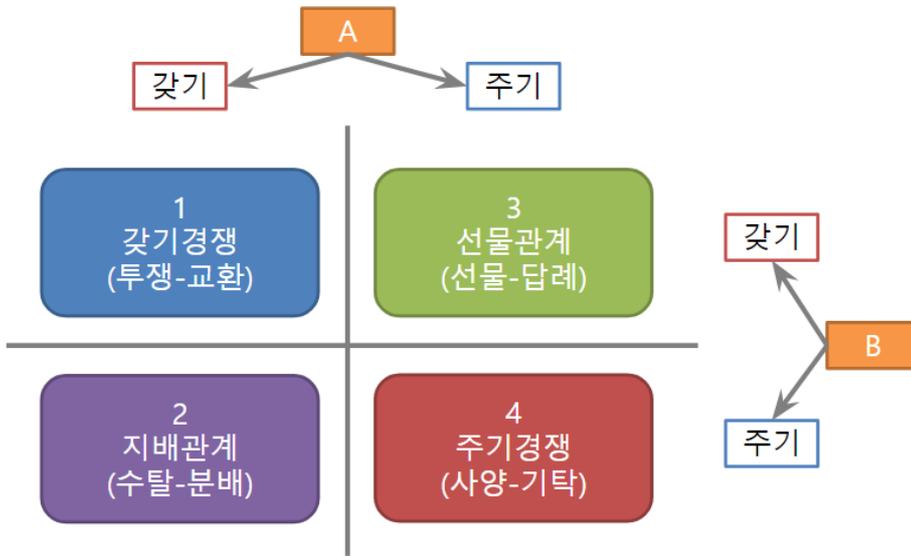
1 빈집과 어소시에이션



	형태	위험요소	반대	극복방안	구체적인 실천들
A	가족/공동체	폐쇄, 고립	가족주의	환대	주인/손님맞이, 놀러가기, 마을잔치, 집바꾸기
B	국가/복지시설	통제, 방관	권위주의	자치	집회의, 살림살이, 공동계약, 동아리, 마을활동
C	자본/숙박업소	독점, 경쟁	자본주의	공유	선물, 출자, 상호부조, 협동조합 빈고
D	빈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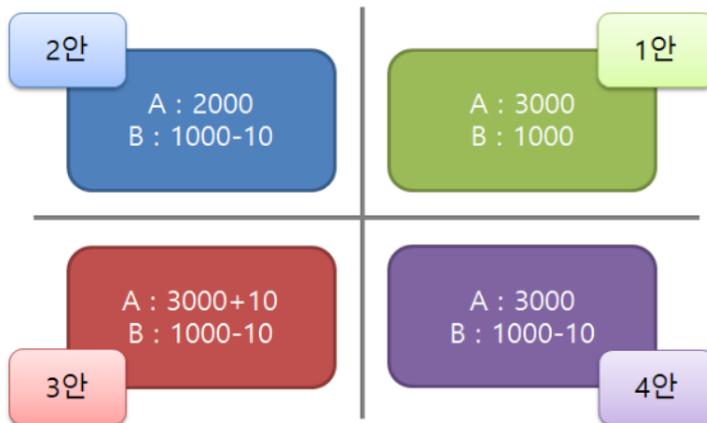
2 빈고게임 3 - 주기 갖기 게임

	갑	갑의 행동	을	을의 행동	양상	형태	반복	확장(병의 등장)	결과와 분배
1	A	주기	C	돌려준다	주기 경쟁	사양	반복, 선순환	확장된 균형	공동결정, 공정한 분배
2			D	받는다	선물	관계	갑의 중단. 3 또는 4	을과 병의 경쟁	갑이 결정, 갑의 선의에 따라 분배
3	B	갖기	C	용인한다	순응	지배	을의 요구. 2 또는 4	갑과 병의 경쟁	갑이 결정, 을의 인내에 따라 분배
4			D	요구한다	갖기 경쟁	투쟁	반복, 악순환	확장된 투쟁	합의결정, 힘에 따른 분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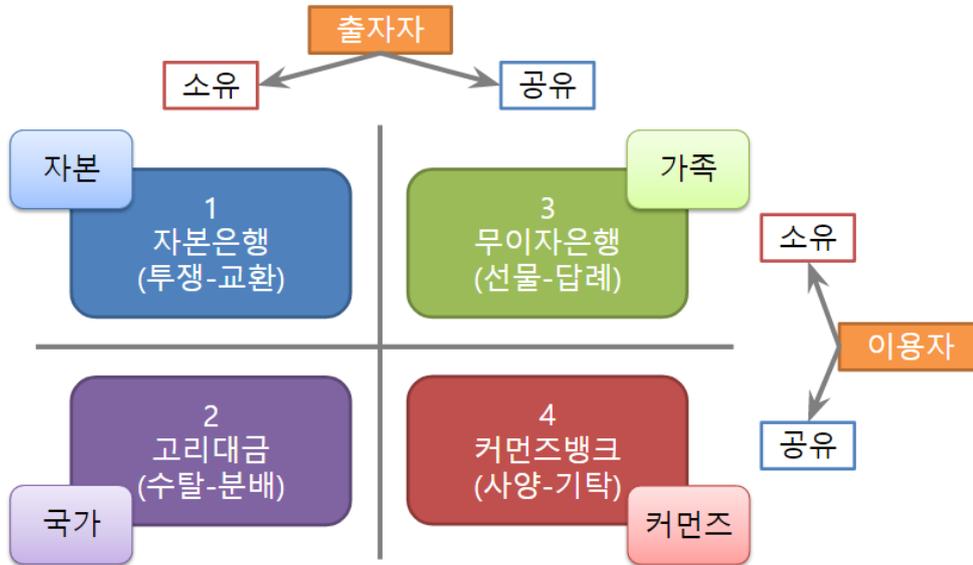


3 빈고게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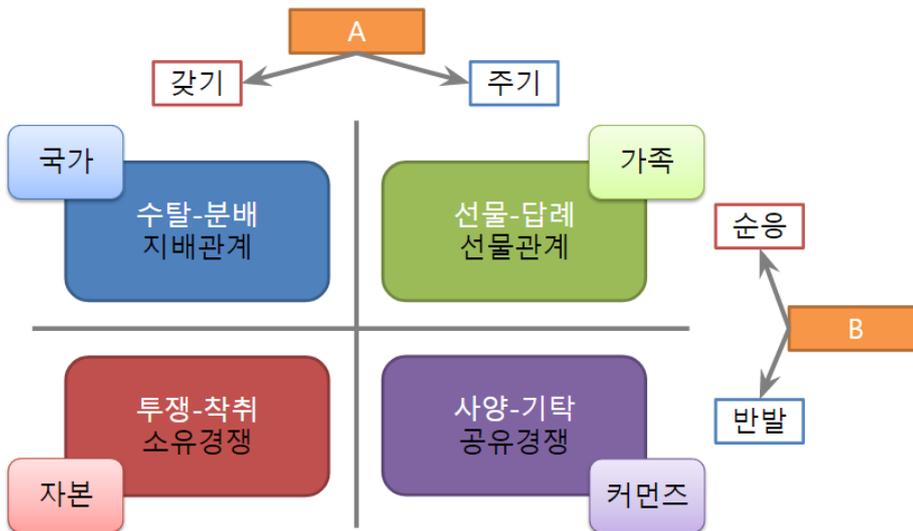
	A	B	비고
1안	3000	1000	전세. (A가 B에게 선물 10?)
2안	2000	1000 / -10	월세 10. (잉여 1000 또는 대출 1000)
3안	1000 / -10	1000 / -10	월세 20. (잉여 2000)
4안	3000 / +10	1000 / -10	전세. B가 A에게 이자 10
5안	3000	1000 / -10	전세. 10은 어디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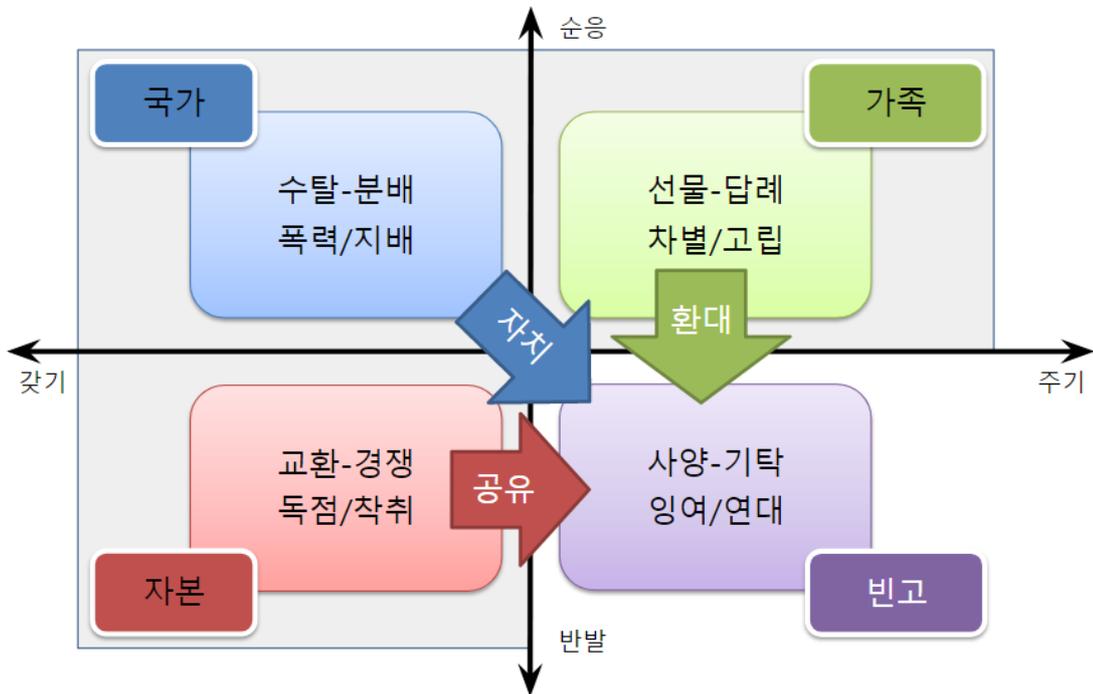
4 은행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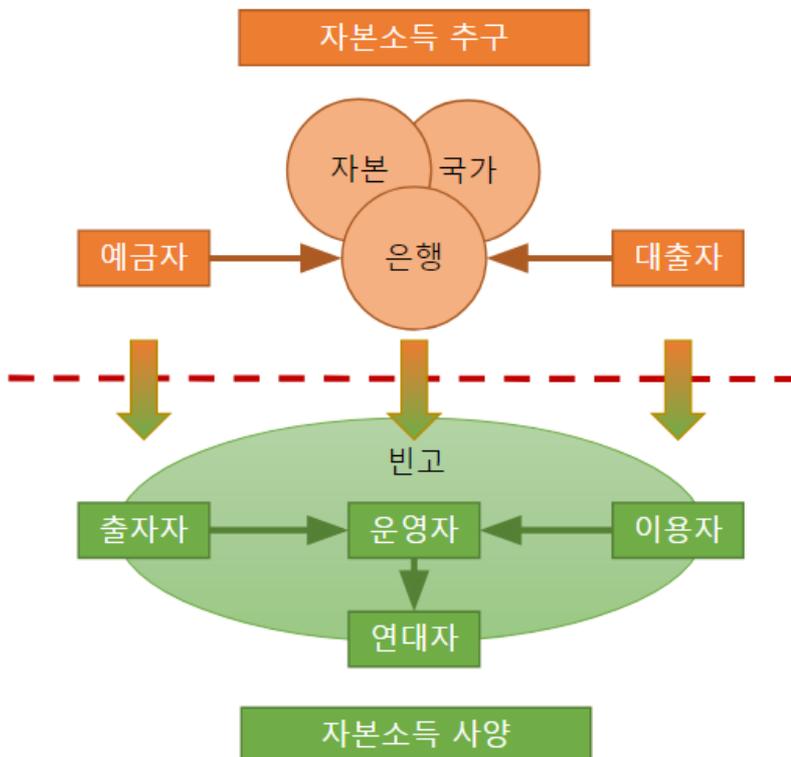
5 커먼즈



6 빈고 3대 가치



7 빈고 4대 활동



8 빈고 4대 활동과 사단(四端)

